

해병대가족법회 창립

해병대전우와 가족을 위한 법회가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에서 최초로 봉행된다. 범어사는 6월 26일 설법전에서 일요법회를 겸한 '범어사 해병대가족법회'의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6개월간의 준비기간에 돌입했다. 이날 법회에는 부산해병대전우회, 웅상해병대전우회, 금정전우회, 부산메아리산악회, 고엽제전우회 등 지역 해병대 전우회원 50여명이 참석해, 법회의 창립에 뜻을 모았다. 범어사 해병대가족법회는 매월 1, 3번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경내 설법전에서 운영되며 해병대 전우와 그 가족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박지원 기자

관자재병원 개원법회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재활전문 요양병원인 부산 관자재병원(이사장 원광, 정수사 주지)이 7월 오후 3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관자재병원은 3월 22일 문을 열고, 현재 정원 128명 중 75명의 불자환자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박지원 기자

상락정 연화홀 개원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대표이사 해충, 조계종 포교원장)산하 가정형 노인요양원 상락정 연화홀이 부산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의 후원으로 6월 30일 부산시 금정구 명륜2동 주택가에 문을 열었다. 연면적 430㎡(130여 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요양원 정원은 16명이며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다. 그밖에 의사의 정기적인 진료 및 어르신 개별진료, 24시간 응급상황대처 및 의료협약기관 연계 등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는 물론 원예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도 병행한다. (051) 912-8909 박지원 기자



두송 복지센터 “만족도 100%”

늘기빠마을(이사장 지현, 관음사 주지)이 운영하는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두송노인복지센터(센터장 김진수)가 사하구 방문요양시설 가운데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이어 "모든 요양보호사들은 담당하는 어르신의 질병에 대해 현직 의사로부터 기초상식과 응급처치법에 대해 배우고 있으며, 마사지와 요가 강사를 초빙해 직접 배워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송노인복지센터는 7월 5일 관공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 사하구에서는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5794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과 환경, 권리, 급여제공 등 5개 서비스분야에서 요양보호사의 교육이나 만족도, 이직률 등 56개 항목별로 이뤄졌다. 두송노인복지센터 관계자는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최우수기관으로 성장하는 주요 요인이

됐을 것"이라며 "어르신에게 일방적인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사전 욕구조사를 통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인지해 만족도를 100%로 끌어올리려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요양보호사들은 담당하는 어르신의 질병에 대해 현직 의사로부터 기초상식과 응급처치법에 대해 배우고 있으며, 마사지와 요가 강사를 초빙해 직접 배워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요양서비스는 고령 및 노인성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08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 중인 사회보험제도다. 박지원 기자

인터뷰 | 두송노인복지센터 김진수 센터장

"사회복지를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부처님은 가장 오래된 선배 사회복지사입니다. 생로병사로 고통 받는 중생을 번뇌에서 구제하기 위해 평생을 길 위에서 설법하고 보살피주셨던 그 모습을 닮고 싶습니다." 김진수 두송노인복지센터장(사진)은 2004년 개소 때부터 6년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900여 세대 어르신들의 든직한 장남 역할을 도맡고 있다. 센터가 자리한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은 부산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번째로 높은 지역이다. 그중 제4지구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에는 1920년대 중창상위 계층 500세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400여 세대가 살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으로 6~7명 남짓의 공간에서 사회와 등 돌린 채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칫 어르신들을 불편한 대상으로 치부하거나 불쌍하다는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잘못을 범할 수 있지요. 하지만 어르신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작은 관심부터 갖기 시작하면 그분들의 삶에 비추어 현재의 나를 반성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데 큰 교훈이 됩니다." 독실한 불자집안에서 자란 탓에 김 소장의 경영방침은 철저한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 있다. 경영 이익을 배제한 채 전 직원이 불자로서의 소양을 길러, 경건으로 공부한 지식을 봉사를 통해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나보다 남이 더 잘되길 기도합니다”

대광명사 김성수 씨

불교 행사는 대체로 의의는 있지 만 재미는 없다. 진정한 가운데 예 불 의식이 끝나면 점점게 둘러앉아 차담을 나누거나 불교합창단의 찬불가 공연을 감상한다. 대광명사 화무량심회 김성수(법명 일진, 57) 회장이 마이크를 잡으면 다르다. 법담에는 웃음이 흐르고 특유의 인변과 좌장을 압도한다. 동창한 사부대중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그의 말 한마디에 대중은 박장대소하다 가도 이내 눈시울이 붉어지며, 부처님을 향한 경외심에 가슴이 뜨거워 지기도 한다. 김성수 회장은 부산 불교계의 국민 MC로 통한다. 대광명사(주지 목종)의 봉사단체인 사무원심회장을 맡으면서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홍보이사, 허하원(원장 정타) 사무국장, 부산불교방송산악회 산행대장, 전 부산시자원봉사교육원과 간병인센터 등 교계는 물론 사회봉사 교육기관을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에게 주어지는 소임은 기획과 홍보 분야지만, 실제로 여러 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기획부터 홍보, 현장 진두지휘, 음향장비 설치 등 어떠한 행사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손을 거쳐야 완성된다. 그런 탓에 분업은 뒷전이고, 일주일 중 6일 이상을 부산지역 여러 사찰에서 기획회의를 하며 보낸다. "교계에서 일하는 시간과 실제 본업에 임하는 시간을 따져보니 7:3이더라고요. 수첩을 보면 개인적인 시간은 거의 없고, 전부 '몇시에 어느 절에서 어느 스님과 무슨 내용'이라는 글 뿐이지요. 스님과 사찰에게는 한 달에 한 번인 회의지만 저는 그런 월례회의를 매일 다니는 셈입니다.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는 가족들이 있어 힘이 납니다."



“봉사를 위한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단 10분이라도 마음을 나눠야 한다.”

수행하고, 이를 다시 실천하기 위한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봉사를 위한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시락만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단 10분이라도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목적은 반찬 배달이 아니라 어르신이 한 끼 공양을 행복하게 드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항상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는 말을 되새긴다. 열사람이 한 숟가락만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치면 한 사람을 돕기가 쉬워짐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그의 진심은 마이크를 타고 대중의 마음에 전달되는 것이다. 어느덧 불자로서 당연한 삶을 사는 스스로가 자랑스럽다는 김성수 회장은 오늘도 부처님을 든든한 후원자로 모시고 유쾌한 신심을 세상에 전한다.

"저는 부처님께 '나와 우리 가족이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잘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남이 잘되면 결국 긍정의 에너지가 나에게도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법석에서 사부대중의 앞에서 많은 분들이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제 인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박지원 기자

법당 코앞 아파트 공사에 '조석예불 불가'

부산 진흥사(주지 정범)는 7월 6일 포스코다산 아파트 건설현장 입구에서 사찰에서 2m 떨어진 아파트 신축 건설로 받는 신행생활의 피해 등에 대한 보상 집회를 열었다. 사찰 측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공사가 진행돼 조석예불은 물론 불교대학 등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전혀 이뤄지지 않을 만큼 소음과 분진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땅을 뚫는 작업에 질 건물이 통째로 흔들려 붕괴의 위험도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찰과 맞닿은 조합 소유의 땅에 승용차 5대 가량을 주차하고 드나들 수 있는 진입로와 주차공간을 양해를 얻어 사용하고 있었으나, 공사현장의 철벽이 들어서며 그마저도 사라져 차량이 들어올 수 없게 됐다. 사찰 관계자는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영구청과 민락재개발조합, 포스코건설에 신도들의 서명을 받아 민원을 제기하고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왔다. 구청장과 국회의원을 만나서 대책수립을 요청했지

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사찰 측은 △사찰 붕괴 위험에 따른 추후 책임 △소음, 분진 등에 따른 대책 및 보상 △관공 후 조망권, 일조권, 홍보권 등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3년간 진흥사 주지스님 이하 신도 등의 신앙생활 파괴와 종교생활 위축으로 나타날 제

반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락재개발조합 관계자는 "공사가 1%도 시작되지 못했는데 벌써 사찰 측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면 추후 원하는 바를 조율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아직 일어 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

구하는 각서를 쓰라고 해 거부했다. 만일 공사 중 피해가 일어나면 그때 보상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포스코건설과 민락재개발조합이 각각 시공사와 시행사를 맡아 2014년 완공을 목표로 27층 12개동 1006가구 규모로 아파트 공사를 진행 중이다. 박지원 기자



부산 진흥사 스님과 신도들이 7월 6일 사찰에 인접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신행생활 피해 등에 대한 보상 집회를 열고 있다.

동산불교대학 39기 신입생 모집



“끝없는 열정”

신행 교육 포교 전문도량 동산

동산불교대학은

각 분야의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통해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각종 수행을 통하여 보다 행복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꿈을 실현시켜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지성인들의 배움의 공간입니다.

▶ 교과목 및 교수

Table with 2 columns: 불교학과, 교수진. 불교학과: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 개론, 선학의 이해, 불교미술,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근본불교, 범어사상, 유식사상, 불교성당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18과목. 교수진: 무진장 대종사 학정스님, 주명철 교수, 정영준 교수, 정영스님, 김형준 교수, 보광스님, 종석스님, 보각스님, 최홍서 교수, 윤영수 교수, 김호기 교수, 활안스님, 최봉수 교수, 김성현 교수, 모주스님, 정성준 교수, 권경희 교수, 박종 교수, 정병호 교수, 차차서 교수 외

▶ 모집방법 및 전형

Table with 4 columns: 모집인원,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모집인원: 불교학과 (180명) (토요일·목요일·통신반 각 60명), 불교다도학과 (30명), 불교미술학과 (30명), 불교한문학과 (30명), 사찰음식문화학과 (30명).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합판사진 3매. 원서교부·접수: [불교학과] [9월 개강학과] 2011년 6월 27일~8월 6일, 2011년 7월 1일~9월 8일. 입학금 250,000원. 강의일시 및 장소: [불교학과] [매주 토요일 오후 6시(토요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목요일)] (통신반은 교재와 테이프 제공.)

▶ 개강일시

불교학과 : 2011년 8월 6일(토) 오후 5시(동산불교대학) 입학식 및 개강 불교다도학과 9월6일(화), 사찰음식문화학과 9월7일(수), 불교한문학과 9월8일(목) 불교미술학과 9월8일(목) 개강

▶ 원서문의·교부처

본대학 사무처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특정사항: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발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Table with 2 columns: 자격과정, 교육기간. 자격과정: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당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특강: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학. 교육기간: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교육인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543-6155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해운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